

《世說新語》를 통해 본 魏晉의 아동형상*

朴敬姬**

<目 次>

시작하는 말

1. 언어능력이 뛰어나다.
2. 남과 다른 독특한 개성이 있다.
3. 뛰어난 지혜를 지니고 있다.
4. 학문적 소양이 있다.
5.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다.

맺는 말

시작하는 말

《世說新語》는 東漢 말에서 東晉 말까지의 약 200년간 실존했던 인물들의 언행과 일화를 〈德行〉, 〈言語〉, 〈政事〉, 〈文學〉 등 36편으로 나누어 다양한 형태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사상, 학문, 사회, 정치, 문화 등을 다각적인 모습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世說新語》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이나 부녀자에 관한 기록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데, 부녀자의 언행을 기록한 〈賢媛〉 편과 타고나면서부터 총명한 자질을 지닌 조숙한 아동들에 관한 〈夙慧〉篇 외에 다른 곳에도 여성이나 아동에 관한 일화들이 저록되

* 이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2007년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어 있다. 이는 개인의 자아를 중시하던 魏晉의 현학적 사유방식과 연관 있는 것으로, 남다른 재능과 풍격을 지니고 있으면 남녀의 성별이나 연령에 구애 받지 않고 예술품을 바라보듯 품평하거나 감상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世說新語》에 수록된 1130조의 고사 가운데 아동이 이야기의 중심이 된 고사는 51조가 있다.¹⁾ 이 논문에서는 《世說新語》에 수록된 아동 중심 고사를 통해 魏晉 시대의 아동을 형상화시켜보고, 후에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위진 시대의 이상적인 아동상은 무엇이며, 그것이 지니는 시대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범주는 〈夙慧〉 편의 고사를 포함하여 15세 미만으로 잡았는데, 본문에 나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어렸을 때(小時) · 몇 살(數歲) · 어린아이(小兒) · 어린(幼) · 總角 · 總髮 등의 단어를 근거로 삼았다.²⁾

『世說新語』 36편에 수록된 고사를 아동 중심으로 분류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귀납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51조의 고사를 재조합하여 분류하니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귀납되었다.

- 1) 언어능력이 뛰어나다.(25조)
- 2) 남과 다른 독특한 개성이 있다.(10조)
- 3) 뛰어난 지혜를 지니고 있다.(8조)
- 4) 學問的 소양이 있다.(6조)
- 5)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다.(2조)

이상의 5가지 유형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내하고자 한다.

1) 德行(3): 1-8, 33, 38/ 言語(14): 2-2, 2-3, 2-4, 2-5, 2-11, 2-12, 2-27, 2-43, 2-46, 2-49, 2-50, 2-51, 2-71, 2-92/ 政事(2): 3-3, 3-19/ 文學(4): 4-14, 4-39, 4-52, 4-83/ 方正(2): 5-1, 5-59/ 雅量(2): 6-4, 6-5/ 識鑑(6): 7-5, 7-6, 7-8, 7-17, 7-25, 7-27/ 賞譽(4): 8-6, 8-11, 8-76, 8-112/ 品藻(1): 9-48/ 規箴(1): 10-10/ 夙慧(7): 7-1~7/ 排調(3): 25-30, 25-33, 25-40/ 假譎(1): 27-7/ 忿狷(1): 31-8.
2) 家學을 통해 학문을 연마하는 陳國 陽夏 謝氏 가문의 고사는 본문에는 연령을 추측해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사적을 토대로 유추해 볼 때 謝安(320-385)이 桓溫의 司馬로 출사한 升平 4年(360)에 사현(343-388)은 18세이고 사도온은 21(?430-)세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20년 동안 동산에 은거하던 시기의 중간지점으로 계산하면 당시 사현과 사도온의 나이는 8, 11세 정도로 추산된다. 강의내용 또한 초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나이와 내용이 대략 부합한다고 하겠다.

1. 언어능력이 뛰어나다.

1.1 논리적이다.

대화 속에서 정확한 논리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정곡을 찌르거나 교묘한 대답으로 자신의 의증을 우회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아동들에 관한 고사로 모두 8조가 있다.³⁾

달 속의 그림자를 사람의 눈동자에 비유하는 논리로 상식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던 東漢 經學家 徐孺子(徐穉, 97-168)는 명리에 뜻을 두지 않고 은거하며 오직 저술에만 전념하였는데, 겸손한 성품에 검소하고 의리가 있어 陳蕃과 郭悤宗 등 많은 淸流名士들의 존경을 받았다. 한말 청류세력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陳蕃은 부임지의 관청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서치를 찾아가 문안을 올렸으며, 태수가 되자 서치를 위해 의자 하나를 만들어 걸어두고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했다.⁴⁾ 그러나 서치는 쓰러지는 큰 나무를 새끼줄 하나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국가관을 지니고 있었으며, 여러 차례 관직에 초빙되었으나 끝까지 제수 받지 않았다.⁵⁾ 서치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고결하고 깨끗한 삶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지러운 정치현실을 외면한 채 일신의 안일만을 추구한 현실도피에 가깝다고 하겠다.

부친이 잠든 사이에 술을 훔쳐 먹은 형제의 고사는 孔融과 鍾繇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言語〉 편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 공옹이 曹조에게 피살될 때 두 아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으므로 鍾毓 형제만 거론하기로 한다. 예로부터 어른이 술을 내

3) 《世說新語》 2-2, 2-4, 2-11, 2-12, 5-1, 6-4, 12-3, 12-6.

4) 《世說新語·德行》 1의 劉注에서 인용한 袁宏의 《漢紀》: 「蕃在豫章, 爲穉孺設一榻, 去則懸之, 見禮如此。」 후에 王勃은 〈滕王閣序〉에서 徐穉를 「지기가 뛰어나 걸출한 인재를 배출했으니, 진번과 같은 인물이 서치를 위해 의자를 만들었다네.(人傑地靈, 徐孺下陳蕃之榻.)」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5) 《後漢書·周黃徐姜申屠列傳》 卷43: 「穉嘗爲太尉黃瓊所辟, 不就. ...臨去, 謂容曰: 『爲我謝悤宗, 大樹將顛, 非一繩所維, 何爲柶西不遑寧處?』」

릴 때는 배례하고 받아야 하며, 「술로서 예를 갖추고(酒以成禮)」, 「술을 마실 때 예를 벗어나면 안 된다.(飲酒不得違禮)」는 법도를 지켜야 했다. 그러므로 증옥은 술 마시는 것은 그 자체가 예이므로 흠친 술일지라도 배례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한 것이다. 배례하지 않고 마신 鍾士季(鍾會, 225-264)는 흠치는 것이 본디 예가 아니므로 배례하지 않았다고 대답 했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예이므로 흠친 술이라 할지라도 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유가적 관념의 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흠치는 행위가 이미 예를 벗어난 것이므로 예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은 유가의 틀을 벗어난 파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魏文帝 曹丕를 알현했을 때도 황제 앞에서 두렵고 황공하여 땀을 흘리다던 형과 달리, 땀을 흘리지 않던 종회는 “두렵고 떨려서 감히 땀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로 황제에 대한 경외심을 표시한다.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발상의 전환을 통해 논리를 전개하며 상황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正道에 근본을 두지 않은 파격과 임기응변은 기회주의가 될 수 있다. 종회는 외당숙 荀勗이 모친의 처소에 두고 있던 보검을 몹시 탐내었는데, 荀勗의 글씨를 위조해서 이모인 순욱의 모친에게 편지를 보내 보검을 가져다 돌려주지 않았다.⁶⁾ 친척 간의 사소한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 종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유형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車騎將軍까지 지낸 형과 달리 晉文帝 司馬昭의 친신이었던 종회는 뛰어난 전략으로 ‘子房’으로 불리며 諸葛誕의 모반을 저지하고 鎮西將軍에 임명되었다. 또 鄧艾와 병사를 인솔하여 蜀을 정벌하러 갔다가 촉을 평정한 후, 司徒로 승진했다. 그 후 鄧艾를 죽이고, 모반을 꾀했으나 난군에게 피살되어 41 세로 생을 마쳤다. 〈易無互體〉·〈才性異同〉 등의 論辯이 있으며, 사후에 종회의 것으로 추정되는 《道論》 20편이 집에서 발견되었다.⁷⁾

어린 陳元方(陳紀, ?-220좌우)은 약속에 늦게 와서는 陳寔(104-187)이 먼저 떠났다고 화를 내는 부친의 친구에게 조목조목 옳고 그름을 따져 잘못을 지적한다. 당돌하지만 절도와 규범이 있고 비류와 함께 하지 않으려는 기개가 엿보인다. 陳

6) 《世說新語·巧藝》 4.

7) 《三國志》卷28: 「會嘗論易無互體、才性異同。及會死後、于會家得書二十篇、名曰道論、而實刑名家也。其文似會。」

紀는 부친인 陳太丘(陳寔), 동생 陳季方(陳諶)과 더불어 당시 三君으로 칭송받았던 청류인사로 성장한다. 훌륭한 덕을 지닌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으며, 효성스럽고 형제간에 화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동한 말 3차례의 黨錮를 겪으며 청류세력인 지식인들은 은둔하여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정치는 날로 어지러워지고 미풍양속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진식은 세상일을 입에 담지 않는 高潔之士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다. 黨錮 사건에 말분하여 수 만자에 달하는 저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⁸⁾ 정치에 관여하면서도 악한 세속의 흐름을 거슬러 인과 덕에 근본을 두고 행동하므로, 한 세대가 본받을 만한 규범을 제시하였다.⁹⁾

길가의 자두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틀림없이 신자두일 것이라고 추리해낸 王濬申(王戎, 234-305)은, 소탈하고 대범하며 청담에 능한 전형적인 위진 명사라고 할 수 있다. 竹林七賢의 한사람으로 20살이나 연상이던 阮籍이 몹시 아끼며 높이 평가하던 인물이다.¹⁰⁾ 인물품평에 뛰어났으며 상황 판단이 정확했고, 답론 시에 문제 제기에 능했으며 요점을 잘 파악하였다. 특별한 능력은 없었으나 각종 업무를 합당하게 처리하여 光祿勳, 吏部尙書로 승진하였으며, 楊駿 집정 시에

8) 《後漢書·荀韓鍾陳列傳》卷62: 「紀字元方, 亦以至德稱, 兄弟孝養, 閨門靡和, 後進之士皆推慕其風, 及遭黨錮, 發憤著書數萬言, 號曰陳子。」

9) 《後漢書·荀韓鍾陳列傳·論》卷62: 「한 중세 이래로 환관들이 전횡하므로 점점 은둔하여 고결하게 지내면서 세상일을 입에 담지 않는 것을 고상하게 여겼다. 지식인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니 나무꾼이나 목동과 같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치는 날로 어지러워졌으며, 미풍양속은 갈수록 사라졌다. 오직 진씨 일족만이 행동거지에 절도가 있어 본받을 만 하였다. 행동거지가 다 덕에 근본을 두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았고, 인에 거하였으므로 사사로이 당을 만들지 않았다. 자신이 올바른 행동을 하므로 도로 천하를 가르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악함 무리들이 권좌를 탈취할 수 없었고, 왕공이 높은 지위를 이용해 교만하게 굴 수 없었으니, 악한 교화가 위에서부터 폐하여져서 풍속이 아래로 올바르게 전하여 질 수 있었다. (漢自中世以下, 閹豎擅恣, 故俗遂以通身矯潔放言爲高. 士有不談此者, 則芸夫牧豎已叫呼之矣. 故時政爾昏, 而其風愈往. 唯陳先生進退之節, 必可度也. 據於德故物不犯, 安於仁故不離羣, 行成乎身而道訓天下, 故凶邪不能以權奪, 王公不能以貴驕, 所以聲教廢於上, 而風俗清於下也.)」

10) 《晉書·王戎列傳》卷43: 「완적은 왕혼과 친구이다. 용은 15세였는데 부친을 따라 와서 郎舍에 있었다. 왕용은 완적보다 20살이 어렸으나, 완적은 그와 친구로 지냈다. 매번 왕혼을 만나러 갈 때 마다 잠시 머물다 자리를 뜨고는 왕용을 보러가서 한참 후에야 나왔다. 왕혼에게 『왕용은 자질이 맑고 뛰어난 것이 경을 능가합니다. 경과 이야기하는 것이 용과 이야기하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말했다. (阮籍與渾爲友. 戎年十五, 隨渾在郎舍. 戎少籍二十歲, 而籍與之交. 籍每適渾, 俄頃輒去, 過視戎, 良久然後出. 謂渾曰: 『濬申清賞, 非卿倫也. 共卿言, 不如共阿戎談.』」

太子太傅를 제수 받았다. 그러나 왕용은 위기 상황에서도 출사와 은거를 자유롭게 하던 衛의 蘧伯玉을 흠모하며, 시류를 따라 눈치를 보며 절조 있는 직언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를 관장하면서 寒品의 인재를 발굴하여 등용하지 않고 문벌을 따져 관리를 등용하였다. 司徒를 제수 받고는 일을 하급 관리들에게 맡기고 한가하게 조랑말을 타고 곁문으로 드나들곤 했으며, 후에 황제를 따라 북벌에 참여해서는 蕩陰에서 패하자 鄴으로 와서 황제를 따르다 滎으로 도망쳤다. 전쟁터에서 두려운 기색 없이 칼을 들고 태연자약하게 답소하며, 어떤 때는 친한 빈객들을 불러 종일토록 즐기기도 했다.¹¹⁾ 永興2년(305)에 滎縣에서 72세로 세상을 떠났다.

王戎은 王衍과 당형제 간으로 당대의 걸출한 명사들을 배출해낸 瑯琊 왕씨 가문 출신이다. 그러나 타고난 재능과 총명, 그에 걸 맞는 관직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명사관에 도취되어, 시류를 따라 부침하며 대의를 저버리고 일신의 멋과 낭만만을 추구하는 잘못 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겠다.

長安과 태양의 거리를 묻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晉 明帝(司馬昭, 298-325)의 다른 두 대답에 관한 고사는 東晉의 2대 황제인 사마소의 이야기다. 당시 西晉의 도성인 洛陽은 惠帝 때 '八王의 亂'으로 황폐해졌고, 그 후 懷帝 永嘉 5년(311)에는 成漢의 劉聰이 파견한 劉曜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는데, 成漢軍은 궁전을 불태우고

11) 《晉書·王戎列傳》卷43 : 「키가 작고 술직하고 꾸밈없고 위세를 부리지 않았으며, 답론 시에 문제제기를 잘했으며 요점을 잘 파악하였다. ... 특별한 능력은 없었으나 각종 사업을 합당하게 처리하였다. 광록훈, 이부상서를 제수 받았으나 모친상을 당해 사직했다. 왕용은 진왕조가 어지러워지자 거백옥의 사람됨을 흠모하며, 시류를 따라 진퇴를 자유로이 하며 직언의 절조를 지키지 않았다. 선거를 관장하였으나 한품의 인재를 발굴하지 않았으며, 좋은 문벌의 무능한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세속을 따라 부침하며 문벌 안에서만 관리를 등용할 뿐이었다. 사도직을 제수 받고는 모든 일을 총괄하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하급관리들에게 일을 맡겼다. 한가하게 조랑말을 타고 곁문으로 놀러 나가곤 했는데 사람들이 삼공인줄 알아보지 못했다. ... 또 황제를 따라 북벌에 참여했을 때는 대오를 벗어나 선봉에 서서 칼을 차고 태연자약하게 답소를 하며 두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빈객들을 불러 종일토록 즐겼다.(爲人短小, 任率不修威儀, 善發炎端, 賞其要會. ... 戎在職雖無殊能, 而庶績多理. 後遷光祿勳, 吏部尚書, 以母憂去職. ... 戎以晉室方亂, 慕蘧伯玉之爲人, 與時舒卷, 無蹇澀之節. 自經典選, 未嘗進寒素, 退虛名, 但與時浮沈, 戶調門選而已. 尋拜司徒, 雖位總鼎司, 而委事僚案, 間乘小馬, 從便門而出游, 見者不知其三公也. 其後從帝北伐, 王師敗績於蕩陰, 戎復詣鄴, 隨帝還洛陽, 車駕之西遷也, 戎出奔于鄴, 在危難之間, 親拔鋒刃, 談笑自若, 未嘗有懼容. 時召親賓, 歡娛永日.)」

약탈했을 뿐 아니라 3만여 명을 살해했다. 洛陽 함락소식에 愍帝가 長安에서 즉위했지만 곧 劉曜의 군대에게 長安도 함락되고(316), 懷帝와 愍帝는 劉聰에게 살해당했다. 그 후 元帝(司馬睿)가 長江을 건너와 大興 元年(318)에 建康에서 즉위해 東晉 時代를 연 것으로, 元帝가 이러한 사정을 明帝에게 말해준 것이다. 장안과 태양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묻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대답을 했지만 모두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사마소는 이처럼 지혜롭게 상황 판단을 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왕돈은 자신이 국정을 휘두르는데 방해가 될까하여 여러 차례 사마소를 제거하고자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병사하였다.

사마소는 書藝에도 일가견이 있었고 賢人들을 예우했으며, 石勒·劉曜·匈奴를 상대로 북방 실지의 회복을 기도했으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재위 삼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謝安과의 대화에 등장하는 동진의 9대 황제인 孝武帝(司馬曜, 362-396)는 11세에 등극하였으며, 褚太后가 섭정했다. 효무제는 재위 기간 동안 많은 난을 겪었다. 즉위하자 곧 盧陔이 海西公 司馬奕의 복위를 명목으로 궁으로 쳐들어왔고, 곧 병사했지만 桓溫은 찬위를 목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경사로 쳐들어왔으며, 司馬道子和 환온의 아들 桓玄이 줄곧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논리가 뛰어나다고 감탄하던 사안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후에 효무제는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 궁중에서 향연만 즐기다, 취중 농담 끝에 궁녀에게 피살되어 35세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¹²⁾ 사마소나 사마요 모두 성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니고 있는 재능과 지도력조차 발휘하지 못한 채 요절한 것으로 미루어 끊임없는 전란과 혼란한 정치다툼의 소용돌이에 희생된 일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12) 《晉書·帝紀》卷9: 「효무제는 어려서 총기가 있고 민첩했다. ... 황제로서의 권위가 있었으며, 황제가 갖추어야 할 고아한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주색에 빠져서 온밤을 술로 지새웠다. ... 술 취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으나, 옆에서 바로잡아 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결국에는 고치지 못했다. 당시 나이 삼십이 다 된 장귀인이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효무가 『네 나이면 당연히 폐출시켜야 한다.』라고 농담을 했다. 귀인은 분노를 숨기고 있다가 저녁이 되어 효무가 취하자 살해했다.(帝幼聰悟. ... 既威權已出, 雅有人主之量. 既而溺于酒色, 殆爲長夜之飲. ... 醒日既少, 而傍無正人, 竟不能改焉. 時張貴人有寵, 年幾三十, 帝戲之曰: 『汝以年當廢矣.』 貴人潛怒, 向夕, 帝醉, 遂暴崩.)」

1.2. 상황을 반전시키는 순발력이 있다.

대화의 주된 흐름을 거슬러 이야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재치 있는 말로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시키는 고사로 7조가 있다.¹³⁾

공자의 20세손인 孔文舉(孔融, 153-208)는 후한 魯國人으로 王粲·劉楨 등과 더불어 建安七子の 한사람이다.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 낙양에 갔다 老子와 孔子의 관계를 들어 명사 李元禮와 자신이 세세토록 친교를 맺은 사이라고 논증하여 좌중의 칭찬을 받았다. 또 어릴 때 똑똑하다 해서 커서도 반드시 훌륭하리란 법은 없다는 陳騰의 말에, 어렸을 때 틀림없이 똑똑했을 것이라는 말로 진위를 반격했다. 당대의 명사들과 거침없이 대화를 이끌어 갈수 있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담대함을 지니고 있었다. 16살 때는 中常侍 侯覽과 원한이 있는 형의 친구 張儉을 숨겨주었다가 형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되었다. 모친까지 합세하여 서로 처벌받겠다고 다투므로, 결국 조서를 올려 형 孔褒가 처벌받았다. 공융은 이 일로 청류명사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¹⁴⁾

공융의 7대 조부 孔霸는 漢 元帝의 스승으로 侍中을 지냈으며, 겸손하고 권력을 좋아하지 않는 성품으로, 평생 《尙書》를 연구했다. 부친 孔宙는 太山都尉를 지

13) 《世說新語》 2-3, 2-27, 2-43, 2-46, 2-50, 3-3, 25-33.

14) 《後漢書·鄭孔荀列傳傳》卷七十：「산양의 장검이 중시상대 후람에게 원한을 사게 되었는데, 후람이 고발인의 이름을 없앤 체포문서를 주군에 보내 장검을 체포하게 했다. 장검은 공융의 형 공포와 오랜 친구로 급히 공포를 찾아왔으나 만나지 못했다. 당시 왕융은 16세로 장검은 나이 어린 그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공융이 그의 군색함을 보고 "형이 비록 출타중이나 제가 어찌 당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그를 숨겨주었다. 후에 이일에 알려지게 되어 국상아래의 사람들을 급습하여 체포하고자 하였는데 장검은 도망을 쳤으나 공융형제는 체포되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처벌을 받게 될지 몰랐다. 공융이 말했다. "장검을 숨겨준 것은 저니, 저를 처벌하십시오." 공포가 "나를 찾아온 것으로 동생은 잘못이 없으니 기꺼이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형리가 모친에게 누구를 처벌할 지 물으니 "집안일은 어른이 책임져야 하니 제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말했다. 온 가족이 서로 벌을 받겠다고 싸우므로 군현에서 해결할 수 없어 판결을 상부로 올렸다. 조서가 내려와 결국은 공포가 처벌을 받았다. 공융은 이 일로 유명해졌다. (山陽張儉爲中常侍侯覽所怨, 覽爲刊章下州君, 以名捕儉. 儉與融兄褒有舊, 亡抵於褒, 不遇. 時融年十六, 儉少之而不告, 融見其有窘色, 謂曰：『兄雖在外, 吾獨不能爲君主邪?』因留舍之. 後事泄, 國相以下, 密就郡捕, 儉得脫走, 遂并收褒, 融送獄. 二人未知所坐. 融曰：『保納舍藏者融也, 當坐之.』褒曰：『彼來求我, 非弟之過, 請甘其罪.』吏問其母, 母曰：『家事任長, 妾當其辜.』一門爭事, 郡縣疑不能決, 乃上讞之. 詔書竟坐褒焉. 融由是顯名.)」

냈는데, 성품이 순수하며 《嚴氏春秋》를 연구했다. 형 공포도 박학다식하며 가학인 《春秋》를 연구했다. 또 공패의 증손 孔奮은 어려서부터 劉歆에게 《春秋左氏傳》을 교수했으며, 공패의 7세손인 孔昱은 어려서부터 가학을 익혔는데, 정치적 견해가 달라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있다 黨錮事件에 연루되었다. 《後漢書·黨錮列傳》에 의하면 공패에서 공욱에 이르는 동안 卿相牧守 53인, 列侯 7인을 배출했다고 전한다. 이처럼 공옹은 대대로 가학인 《春秋》를 연구했으며,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을 지닌 가문출신이었다.¹⁵⁾

공옹은 정치적 견해가 달랐던 董卓·何進·曹操들에게 재능만 믿고 오만하게 굴다 여러 차례 원한을 샀으나 명성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며, 동탁에 의해 황건적의 침략이 빈번한 北海 丞相에 천거되었다.¹⁶⁾ 그러나 공옹은 행정가형의 문인이지만 난세를 평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은 아니었다.¹⁷⁾ 학교를 건립하거나 현량을 천거하는 등 치세의 일들은 잘 감당했으나, 전쟁에는 무능력하여 황건적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강직한 성격에 의분을 지니고 있는 공옹은 初平 3년(192)·興平 元年(194) 두 차례에 걸쳐 徐州刺史 陶謙과 함께 천자를 낙양으로 모시려는 모의를 하였다. 심지어는 漢室을 도모하려는 袁紹와 조조에게 협력할 것을 권하는 좌승상을 살해하기까지 하였다.¹⁸⁾ 또 建安 元年(196)에 袁紹의 아들 袁譚이 靑州를 공격했을 때는 수

15) 王鵬廷, 建安七子研究, 北京大學出版社, p.28, 2004.

16) 《後漢書·鄭孔荀列傳》卷七十: 「후에 사공연에 징초되었으며 중군후에 제수되었다. 재직 3일 만에 호분중랑장으로 승진했다. 동탁과 임금을 폐하고 새로 세우는 문제를 의논하는데 매번 대답할 때마다 바로잡으려는 말을 해서 동탁의 뜻을 거슬렀으므로, 의랑으로 전직시켰다. 당시 황건적의 침략이 잦았는데, 북해에서 제일 많이 충돌했다. 동탁은 삼부에 간하여 공옹을 북해상으로 천거했다.(後辟司空掾, 拜中軍候. 在職三日, 遷虎賁中郎將. 會董卓廢立, 融每因對答, 輒有匡正之言. 以忤卓旨, 轉爲議郎. 時黃巾寇數州, 以北海最爲賊衝, 卓乃諷三府同學融爲北海相.)」

17) 《後漢書·鄭孔荀列傳》卷七十: 「공옹은 청고한 명성이 있었으며, 난세를 평정하는데 뜻을 두고 있었으나, 재능은 빈약하고 뜻은 원대하여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融負其高氣, 志在靖難, 而才疎意廣, 迄無成功.)」

18) 《後漢書·鄭孔荀列傳》卷七十: 「당시 원소와 조조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있었는데, 공옹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좌승상이 그들이 역모하려 한다고 말하고는 공옹에게 그 뜻을 받아들일 것을 권했다. 공옹은 원소와 조조가 결국에는 한실을 도모할 것임을 알았으나 함께 할 뜻이 없으므로, 노하여 그를 살해했다.(時袁、曹方盛, 而融無所協附. 左丞相者, 稱有意謀, 勸融有所結納. 融知紹、操終圖漢室, 不欲與同, 故怒而殺之.)」

수방관하며 담소를 즐기다 성이 함락되자 혼자 도망쳤으며, 처자는 원담에게 포로가 되었다.¹⁹⁾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침착하게 담소를 즐기는 공융의 이런 태도는 왕융이나 사안과 같은 후세의 명사들에게 계승되었으며, 동진의 放達不羈한 행동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과격하고 극단적이며, 조조에 대한 반항과 거역을 표출해 내던(發辭偏宕, 多致乖忤)’ 언사는 위진 풍류의 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漢室에 대한 충성심으로 조조에게 불만을 지니고 있던 공융은 자주 조조를 비웃거나 모욕했으며, 또 조조에 대한 반항으로 조조가 금주령을 내리자 여러 차례 업신여기는 투로 불가함을 주장했다.²¹⁾ 공융이 또다시 천자를 존중하여 군권을 확대하고 제후권력을 약화시키자는 상소를 올리자, 조조는 결국 路粹에게 不忠不孝를 빌미로 상소를 올리게 하여 공융을 처형했다.

8살에 “좌중에 孔子가 없으니 어떻게 顏回를 알아보겠습니까?”라는 말로 좌중

19) 《後漢書·鄭孔荀列傳》卷七十：「건안 원년 원담이 공격해왔는데, 봄부터 여름까지의 전쟁으로 병사 수 백 만명 살아남았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접전을 벌이는데도, 융은 안식에 기대어 책을 읽으며 태연자약하게 담소를 나누었다. 밤에 성이 함락되자 동산으로 도망쳤으며, 처자는 원담에게 포로가 되었다.(建安元年, 爲袁譚所攻, 自春至夏, 戰士所餘裁數百人, 流矢雨集, 戈矛內接. 融隱几讀書, 談笑自若. 城夜陷, 乃奔東山, 妻子爲譚所虜.)」

20) 張蓓蓓, 孔融新論, 魏晉學術人物新研, pp.24-25, 大安出版社, 臺北, 2001.

21) 《後漢書·鄭孔荀列傳》卷七十：「처음 조조가 업성을 공격하자 원씨의 처자는 대부분 약탈당했으니, 조조의 아들 조비는 몰래 원희의 처 건씨를 첩으로 삼았다. 공융이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 『무왕이 주나라를 토벌하여 달기를 주공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조조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후에 출처가 무슨 경전에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현재의 일로 미루어 헤아려보신다면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후에 조조가 오환을 토벌하려고 하자 또 『대장군이 원정을 나가 홀로 쓸쓸히 나라밖에서 싸우시네. 옛날에 숙신은 호목으로 만든 화살을 조공으로 바치지 않았으며, 정령은 소무의 우양을 훔쳤는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조롱했다....당시 흉년이 들고 군사를 일으켰으므로 조조는 금주령을 내렸는데, 공융이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 불가함을 주장했는데, 다분히 업신여기는 투의 문장이었다. 조조의 계략이 점차 드러나고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자 과격하고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었으니, 거역하고 거스르는 말이 대부분이었다.(初, 曹操攻屠鄴城, 袁氏婦子多見侵略, 而操子丕私納袁熙妻甄氏. 融乃與操書, 稱『武王伐紂, 以妲己賜周公.』操不悟, 後問出何經典, 對曰：『以今度之, 想當然耳.』後操討烏桓, 又嘲之曰：『大將軍遠征, 蕭條海外, 昔肅慎不貢楛矢, 丁零盜蘇武牛羊, 可并案也.』...時年饑兵興, 操表排酒禁, 融頗書爭之, 多侮慢之辭. 既見操雄略漸著, 數不能堪, 故發辭偏宕, 多致乖忤.)」

의 안회라는 칭송을 받았던 謝仁祖(謝尚, 308-356)는 謝鯤의 아들이며 謝安의 중형으로 陳郡 謝氏 일족이다. 음율에 정통하고 舞蹈와 글씨에 능했으며 淸談을 숭상했다. 王導가 매우 아꼈으며, 王戎에게 비견되곤 했다.

사상의 부친 사곤은 老莊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겼으며, 威儀를 차리거나 功名을 숭상하지 않았다. 阮放·胡毋輔之·畢卓·桓彝·王尼·羊曼·玩孚등과 더불어 ‘八達’로 불리던 兩晉 교체기의 명사였다. 조부 謝衡은 國子祭酒를 지냈으며, 증조부 謝纘은 典農中郎將을 역임했다. 陳郡 謝氏 가문은 사곤에 와서 이름이 나기 시작했는데, 사상은 성격이 즉흥적이어서 세세한 예절에 구애받지 않았다. 형의 장례를 치른 후 묘소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王濛과 劉惔이 베푼 연회에 참석하여 겨우 두건만 벗고 모자는 쓴 채로 놀다가 주연을 절반정도 즐긴 후에야 상복을 벗지 않은 것을 알아차린 적도 있다.²²⁾

사상은 歷陽太守를 역임했으며, 江夏·義陽·隨三郡 군사를 지휘했다. 庾翼이 武昌을 수비할 때 여러 차례 불러서 군사를 상의하곤 했다. 建元 중에 西中郎將으로 楊州 六軍의 모든 군사를 도독했으며, 후에 豫州와 揚州의 五郡軍事를 감독했다. 환온과 함께 북벌에 참가했으나, 반란군 張遇에게 武昌에서 패하여 체포되었다. 그러나 당시 섭정을 하고 있던 康獻褚皇后的 외삼촌인 까닭에 建威將軍으로 강등되었다. 晉 穆帝 永和 초에는 尙書僕射가 되었고, 江西·淮南의 諸軍事를 감독하였다. 환온이 낙양을 회복한 후 사상을 낙양에 주둔시키고자 하였으나 병으로 거절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사하였다. 음악에 정통하였던 사상은 壽陽에 주둔할 때 石磬을 사용하여 鐘石之樂의 효시가 되는 太樂을 만들었다. 《隋書·經籍志》에는 《謝尚集》 10권이 저록되어 있으나 일실되어 전하지 않으며, 악부 《大道曲》이 전해지고 있으며, 表와 疏등이 《全晉文》에 수록되어 있다.

자연을 숭상하는 시대풍조에 따라 위진 명사들은 대부분 진솔한 감정을 중시했으며, 현실적 상황을 뛰어 넘어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莊子의 逍遙遊의 경지를 흠모했다. 전쟁터에서 수수방관하며 담론을 즐기던 공융이나, 형의 장례를 치루고 돌아오다 상복을 입은 채로 연회에 참석하여 주연을 즐기던 사상의 상식을 뛰어넘

22) 《世說新語·任誕》 33.

는 행위들은 모두 物과 我가 하나 될 때 이를 수 있는 '정신적으로 성인의 경지에 도달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막중한 국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內聖外王)' 경계에 도달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밖에서 일을 할지라도 참 자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사람들을 떠나 홀로 거할지라도 세속과 합할 수 있는(遊外者依內, 離人者合俗.)'²³⁾ '無爲而無不爲'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용이나 사상은 모두 '無爲'를 흠모했을지언정, '無不爲'의 경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저명한 東晉 사학가 孫盛(대략 302-374)의 두 아들 孫潛과 孫放에 관한 고사가 2조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두 아들의 字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家諱를 범하는 내용이다. 孫盛은 字가 安國이며, 太原 中都사람이다. 박학하고 명리에 밝았으며, 殷浩와 더불어 淸談으로 이름이 높았다. 환온과 촉을 정벌할 때 공을 세웠으며, 저서로 《魏氏春秋》二十卷, 《晉陽秋》三十二卷, 《文集》十卷, 《易象妙於見形論》 등 論難 수 십 편이 있다. 그러나 《魏氏春秋》와 《晉陽秋》는 일찍이 망실되어 전하지 않고, 《弘明集》·《廣弘明集》·《全晉文》·《三國志》와 《世說新語》의 注에서 그 일부를 볼 수 있다.

孫盛은 다른 동진시대의 현학가들과 마찬가지로 王弼·裴頠·郭象 등의 명교와 자연은 하나라는 설을 답습하면서, 유가와 도가를 종합하는 '體道通玄'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자연의 '道'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노자를 비판하고 장자를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²⁴⁾ 孔子는 태어날 때부터 도를 깨친 성인이므로, 감히 흠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莊周와 나란히 하려고 한다는 손방의 대답은 바로 유가의 가르침과 도가의 虛靜觀念을 회동시킨 손성의 현학정신을 드러내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진대에는 특별히 가휘를 중시했는데, 부친의 사후에 생전의 이름을 결코 입에 올리지 않았으며, 남에게서 듣는 것조차 꺼렸다. 남이 그 諱를 말하면 돌아가신 부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자 눈물을 흘렸다. 桓溫의 아들 桓玄이 王忱과 술을 마시다 술을 데워오라고(令溫酒來) 하는 王忱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던 것

23) 《莊子·大宗師》「彼, 遊方之外者也; 而丘, 遊方之內者也」句의 向·郭注.

24) 周大興, 自然·名教·因果-東晉玄學論集, p.84, 中央研究院 臺北:中國文史哲研究所, 2004.

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²⁵⁾ 庾翼과 손방이 경쟁적으로 가휘를 범하며 상대방을 조롱하는 모습을 통해 고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부정하던 당시의 任誕不羈한 시대풍조를 엿볼 수 있다.

손잡은 예장태수를 지냈으며, 殷仲堪이 王國寶를 토벌할 때 억지로 諮議參軍에 임명하려하였으나 고사하다 근심으로 죽었다. 손방은 長沙相으로 생을 마감했다.²⁶⁾

1.3. 청담에 관심이 있다.

청담은 위진 남북조의 사상과 문화를 주도했던 문인사족계층의 독특한 문화 활동으로, 청담에 관한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고사 7조가 수록되어 있다.²⁷⁾ 그중에는 인물의 우열을 논하는 것도 있는데, 인물품평도 청담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므로 포함시켰다. 인물품평에 관한 것으로, 陳紀의 아들 陳羣과 陳諶의 아들 陳忠이 각기 부친의 공덕의 우열을 조부 陳寔(104-187)에게 묻는 고사와 王濛의 아들 王修(334-357)가 부친과 청담을 나누던 손님의 수준을 묻는 2개의 고사가 있다.

魏晉에서는 後漢의 鄉舉里選을 토대로 한 九品中正制를 통해 관리를 등용하였으므로,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일단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 명사의 반열에 들게 되고 세상에 미담으로 유전되며, 淸官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앞 장에서 나온 공융이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진기와 진군의 중간인 공융은 재능만 믿고 몹시 거만했는데, 처음에는 진기와 벗하였으나 후에 진군과 교류하다가 다시 진기에게 관직을 수여받았으므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²⁸⁾ 공융은 이처럼 당시 ‘三君’으로 추앙받던 명사들의 인

25) 《世說新語·任誕》 50.

26) 《晉書·本傳》卷82: 「潛字齊由, 爲豫章太守. 殷仲堪之討王國寶也, 潛時在郡, 仲堪逼以爲諮議參軍, 固辭不就, 以憂卒. 放字齊莊, 幼稱令慧...終於長沙相。」

27) 《世說新語》 1-8, 8-76, 8-112, 9-48, 12-1, 12-4, 4-39.

28) 《三國志·魏書》卷22: 「魯國孔融高才倨傲, 年在紀, 羣之間, 先與紀友, 後與羣交, 更爲紀拜, 由是顯

정을 받으면서 명사의 반열에 들고 관직을 제수 받게 되었다.

그러나 후대로 오면서 정치적인 목적의 인물품평은 점차 한사람이 지닌 자질과 내재적 아름다움을 발견해내고자 하는 심미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다. 진군과 진충이 부친의 공덕의 우열을 가리기위해 다투는 것과 왕수가 청담을 나눈 부친에게 상대의 청담수준을 묻는 것은 모두 이러한 시대 풍조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음성과 훌륭한 언사는 나만 못하지만 종종 곧바로 핵심을 찌르는 것은 나보다 낫다”라는 王濛의 대답으로 미루어, 청담은 언어적인 수사와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고도의 학문적 능력을 지녀야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식은 청담을 엿듣다 밥을 죽으로 만든 아들들이 답론의 내용을 거의 다 이해하는 것을 보고, “이런 수준이라면 밥이 죽이 되어도 괜찮다. 꼭 밥만 지어야 한다는 법이 있겠느냐!”라는 말로 책망을 대신했으며, 司空 顧和는 청담을 흉내 내던 외손자 장현지와 친손자 고부에게 쇠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울 보배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청담은 문인 사대부 계층의 문화적 소양을 가리는 중요한 잣대였을 뿐 아니라 명사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수단이었다. 명사의 반열에 들면 사회적인 명예와 정치적인 지위를 보장 받게 되는 것이다. 청담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청담환경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답론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또 그를 통해 일종의 선행학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청담환경을 많이 접할 수 있는 문벌세족 가운데서 당연히 많은 명사가 배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쇠락한 가문에서 어린 나이에 청담문화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謝奉이 魏隱형제와 답론을 나누고 쇠락한 위씨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며 기뻐했던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難兄難弟라는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진충과 진군(?-236)은 모두 견식과 도량을 겸비한 인재들로 진기의 장자인 진군은 조조에 의해 司空掾에 초빙되었고, 조비 때는 상서를 역임했는데 九品中正制를 통해 관리를 등용할 것을 건의했으며, 魏明帝 때는 司空과 尙書의 일을 겸했다.

1.4. 철학적 담론에도 조예가 있다.

위진 청담의 토론 내용은 대체로 《周易》·《老》·《莊》 三玄의 주석과 설명에 관한 것, 유가와 도가의 학술 즉 內聖外王 혹은 王道霸術에 관한 것, 新舊 經說의 異同, 각종 名理의 辨析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²⁹⁾ 名理의 辨析이란 〈四本論〉이나 〈聲無哀樂論〉 등 철학적 주제에 관한 담론으로 이와 연관된 고사로 3조가 있다.³⁰⁾

顧和는 顧敷와 張玄之와 함께 부처의 入寂圖를 보다가 어떤 제자는 울고 어떤 제자는 울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외손자 장현지는 할아버지의 편애라는 프리즘을 통해 울고 울지 않음을 해석하고, 손자 고부는 忘情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 '忘情'은 '忘我'의 경지에서 가능한 것으로, 불교의 진리를 체득하여 번뇌를 끊어야만 가능하다. 일곱 살 난 고부가 불가의 관점에서 입적도를 설명한 것을 볼 때, 당시 행해지던 청담의 주제 중 하나인 불교적 담론의 일부분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漢代에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竺法護·帛法祖·竺叔蘭·支孝龍 등 서역 승들은 대부분 현학적 풍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청담에 능통했다.³¹⁾ 그중에서도 支遁은 불도뿐 아니라 현학사상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불가이론으로 《莊子》의 〈逍遙遊〉를 해석하여 郭象과 向秀를 능가한다는 칭찬을 받으며,晉 哀帝 때에 建康에서 활동하며 謝安·王羲之·王坦之·殷浩·謝玄 등 당대 명사들과 교유했다.³²⁾ 이처럼 현묘함을 숭상하던 위진 명사들 사이에서 서역승들은 명리를 변석하며 청담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七沙門은 竹林七賢에 支遁은 向秀에 비교되는 정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³³⁾ 그래서 양진 이후 불교는 문벌세족의 사상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강동 토착 유학 대족인 吳郡 顧氏 가문은 漢代 이후 줄곧 漢儒의 전통을 지켜온

29) 賀昌羣著, 魏晉清談思想初論, pp.3-4, 魏晉思想 甲編五種, 臺灣: 里仁書局, 1984.

30) 《世說新語》 2-51, 4-14, 4-83.

31) 湯錫子, 漢魏兩晉南北朝佛教史, p.170, 臺灣: 鼎文書局, 1982.

32) 《世說新語·文學》에 그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33) 《世說新語·文學》 36 劉注에서 인용한 〈道賢論〉

가문으로 顧榮이 司馬睿와 더불어 建康에 東晉을 건립한 이후 점차 현풍에 물들기 시작했다. 고화가 바로 그 관건인물로, 불교를 거부하던 顧榮이나 顧衆과 달리 玄佛兼重의 태도로 玄談에 참여했다.³⁴⁾ 고화가 부처의 입적도를 보면서 손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도 일종의 現불겸중의 선행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고화의 편애를 한 몸에 받던 顧敷는 충분히 대성할만한 기량을 지니고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23세에 죽었다.³⁵⁾

樂廣과 꿈에 관해 담론을 하던 衛玠(286-312)는 河東 安邑 衛氏로 조부 衛瓘은 晉의 鎮西將軍·司空·錄尚書事를 지냈으며, 부친 衛恒은 黃門郎을 지낸 문벌 세족 출신으로 위계 자신은 太子洗馬를 지냈다. 太子洗馬란 태자가 출행할 때 태자의 행렬 앞에서 위의를 차리고 선도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소탈한 성품에 기상이 맑고 총명한 위계는 어려서부터 명리변석에 뛰어났으며, 《周易》과 《老子》에 밝았다. 그러나 병약하여 함부로 밖에서 담론에 응대하지 않았다.³⁷⁾ 특히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만한 빼어나 외모를 지니고 있어, 어렸을 때는 ‘玉人’이라고 불렸으며,³⁸⁾ 호쾌한 풍채를 지닌 외삼촌 표기장군 王濟조차 “주옥과 같은 사람 옆에 있으니, 내 모습이 추하다고 느껴진다.”라고 할 정도였다.³⁹⁾

명리변석에 뛰어났던 위계는 언담의 이치를 잘 꿰뚫을 뿐 아니라 핵심적인 오

34) 許輝、邱敏、胡阿樣 主編，六朝文化，pp.174-176，中國：江蘇古籍出版社，2001。

35) 《世說新語·夙慧》4에서 인용한 《顧愷之家傳》曰：「부는 자가 조근으로 오군 출신의 오인이 다. 충분히 대성할 만한 기량을 지니고 있었다. 벼슬은 저작랑에 이르렀으며 23세에 죽었다. (數字祖根，吳郡吳人，滔然有大成之量。仕至著作郎，二十三卒.)」

36) 《世說新語·言語》32 余嘉錫箋疏에서 인용한 《續漢志》：「太子洗馬，比六百石，員十六人。太子出，則當直者前導威儀。」

37) 《世說新語·文學》20劉注에서 인용한 『衛玠別傳』曰：「위계는 어려서부터 명리 변석에 뛰어나고, 주역과 노자에 밝았으나, 본디 병약하여 애당초 밖에서 함부로 담론에 응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의 친구들이 감탄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위군은 말을 하지 않지만 했다하면 반드시 심오한 경지에 이른다.』라고 감탄했다.(玠少有名理，善易、老，自抱羸疾，初不語外，擅相酬對。時友歎曰：『衛君不言，言必入真。』)」

38) 《世說新語·容止》19주에서 인용한 『衛玠別傳』曰：「위계는 동년배들 가운데 진실로 남다른 풍채를 지니고 있었다. 7-8세 때 흰 양이 끄는 작은 수레를 타고 낙양시가를 지나면 모두들 『뉘 집의 옥동이지?』라고 말했다. 그래서 가문과 마을 사람들이 그를 『옥인』이라고 불렀다.(玠在羣伍之中，寔有異人之望。龔胤時，乘白羊車於洛陽市上，咸曰：『誰家璧人?』於是家門州黨號爲『璧人』.)」

39) 《晉書》卷36曰：「驃騎將軍王濟，玠之舅也，雋爽有風姿，每見玠，輒歎曰：『珠玉在側，覺我形穢。』」

묘한 경지로 담론을 이끌곤 했는데, 그때마다 王澄이 그 자리에서 탄식하며 절도 하곤 하여 “위군이 도를 논하니, 평자가 세 번 절도했다.(衛君談道, 平子三倒.)”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⁴⁰⁾ 또 武昌에서 담론할 때는 끊어졌던 王弼의 청담을 되살려내어, 正始 年間の 청담을 다시 들을 수 있게 했다는 칭찬을 들었다.⁴¹⁾ 이처럼 위개가 명리변석에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될 때까지 추론하는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빼어난 외모와 명리 변석에 뛰어났던 당대의 명사 위개는 가벼운 비단옷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병약한 몸 때문에 27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의 죽음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八王의 亂을 피해 洛陽에서 江夏(武漢)를 거쳐 豫長(南昌)에 와서 왕돈에게 잠시 의탁하다 또다시 建鄴(南京)으로 건너갔을 때, 오랫동안 그의 명성을 듣던 사람들이 담을 치듯 몰려들어 구경하므로 여독의 피로와 ‘구경 독’을 이기지 못해 죽었다는 설이다.⁴²⁾ 또 다른 하나는 위개가 처음 강남으로 왔을 때 왕돈을 만나러가서 밤늦도록 謝鯤과 더불어 새벽까지 담론을 계속하였는데, 갑자기 너무 과로하여 병이 깊어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설이다.⁴³⁾

명리 변석에 뛰어난 위개의 사상은 악광과 나눈 꿈에 대한 의견 외에는 기록된 것이 없다. 또 태자세마였던 위개는 나라를 위해 세운 공이나 남다른 업적도 없다. 그러나 사곤이 위개의 죽음을 몹시 애통해 하자,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사곤은 “동량이 부러졌는데 어찌 슬퍼하지 않겠소?”라고 대답했다.⁴⁴⁾ 또 咸和연간

40) 《世說新語·賞譽》45 및 劉注에서 인용한 《衛玠別傳》: 「남야의 왕평자는 높은 기상이 출중하여 세상을 뛰어넘어 홀로 도도했지만, 매번 위개의 언담을 듣다가 이치를 꿰뚫을 때나 핵심적인 오묘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곧 그 자리에서 졸도하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위군이 도를 논하면, 평자는 세 번 절도한다네.”(琅邪王平子高氣不羣, 邁世獨傲, 每聞玠之語議, 至於理會之間, 要妙之際, 輒絕倒於坐. 前後三聞, 爲之三倒. 時人遂曰: 『衛君談道, 平子三倒.』)」

41) 《世說新語·賞譽》51 유주에서 인용한 《衛玠別傳》曰: 「玠至武昌見王敦, 敦與之談論, 彌日信宿. 敦顧謂僚屬曰: 『昔王輔嗣吐金聲於中朝, 此子今復王振於江表, 微言之緒, 絕而復續. 不悟永嘉之中, 復聞正始之音. 阿平若在, 當復絕倒.』」

42) 《世說新語·容止》19.

43) 《世說新語·文學》20.

44) 《世說新語·傷逝》6의 劉注에서 인용한 《永嘉流人名》: 「위개가 죽자 사곤이 무창에서 애도

(326-334)에 丞相 王導는 風流名士로 천하 사람들에게 추앙받았던 위계의 묘는 마땅히 이장해야 한다고 하며 南昌에서 江寧으로 묘를 이장했다.⁴⁵⁾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永嘉시기에는 국가에 대한 업적이나 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문벌세족의 자제로 멋진 외모에 청담에 능하고, 남다른 풍격을 지닌 인물이면 모두 풍류명사로 추앙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세에 賢人論을 지은 王修는 太原 晉陽 王氏로 王濛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이 있어 당대의 명사들에게 존중받았으며, 王羲之 등과 친하게 지냈다.⁴⁶⁾ 왕수의 〈賢人論〉은 현인이 무의식중에 진리에 회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고로 길한 자리에 있으므로 자연 사람들이 모여들어 조금도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易·坤》六五「黃裳元吉」의 도리를 천명한 것이다. 劉惔은 이 현인론을 보고 내용이 심오하고 논리가 정교하다고 칭찬했으나, 터럭과 들보의 비유는 난삽하고 논리가 세워져 있지 않다.⁴⁷⁾ 진대의 철학적 담론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왕수는 24세에 세상을 떠났다.

하며 애통함을 이기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마음아파 이렇게 슬퍼하십니까?』라고 묻자, 『棟梁(국가의 중신, 중임을 맡은 사람)이 부러졌는데 어찌 슬퍼하지 않겠소?』라고 대답했다.(玠以6年6月20日亡, ...玠之薨, 謝幼輿發哀於武昌, 感慟不自勝. 人問: 『子何卹而致哀如是?』 答曰: 『棟梁折矣, 何得不哀?』))

45) 《世說新語·傷逝》6.

46) 《世說新語·賞譽》134 劉注에서 인용한 《語林》曰: 「敬仁有異才, 時賢皆重之. 王右軍在郡迎敬仁, 叔仁輒同車, 常惡其遲. 後以馬迎敬仁, 雖復風雨, 亦不以車也.」

47) 《世說新語·文學》83 劉注: 「王脩集에 실린 현인론은 다음과 같다. “역경에서 현인을 일컬어 ‘노란치마(덕이 밖으로 넘쳐흐르는 겸손한 인물)가 최고로 길하다고 했는데, 만일 아직 무의식중에 진리에 회통할 수 없다면 어찌 통달하기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통달하기를 구한다는 것은 진리에 도달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니, 부족한데도 ‘최고로 길하다고 한다면, 혹 잘못된 것은 아닐는지요?’라고 어떤 사람이 물었다. “현인은 진실로 아직 무의식중에 진리에 회통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진리에 완전히 도달한다는 것은 터럭하나로 들보를 끌어당기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터럭하나로 들보를 끌어당기는 것은 비록 진리에 도달하는 데 부족하므로, 들보를 동요시킬 수 없습니다. 현인은 정이 지극히 적고 터럭은 형체가 지극히 작습니다. 터럭이 들보를 동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현인에게 어찌 진리에 도달하는 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脩集載其論曰: 或問『易稱賢人, 黃裳元吉, 苟未能闡與理會, 何得不求通? 求通則有損, 有損則元吉之稱將虛設乎?』 答曰: 『賢人誠未能闡與理會, 當居然人從, 比之理盡, 猶一毫之領一梁, 一毫之領一梁, 雖於理有損, 不足以撓梁. 賢有情之至寡, 豪有形之至小, 豪不至撓梁, 於賢人何有損之者哉?』))

48)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p.261.

2. 남과 다른 독특한 개성이 있다.(10조)

2.1. 의연한 태도를 지녔다.

예상치 못한 돌발적 상황이나 불행 앞에서 어른과 다름없는 의연한 태도로 대처했던 어린이들의 고사로 4조가 수록되어 있다.⁴⁹⁾

후원에서 채소를 뜯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다치자 8살 난 范宣은 '신체발부는 감히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유가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엉엉 울었다. 다친 손가락의 아픔보다 《孝經》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을 애통해 한 것이다. 범선은 10세에 詩書를 읽었으며, 집안이 가난하여 친히 농사를 지어 부모를 공양하였는데, 太學博士·散騎常侍에 초빙되었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은둔을 숭상하였으며, 군적을 두루 섭렵했다. 특히 《三禮》에 밝았고, 저서로는 《禮易論難》이 있다. 正始 이후로 老莊을 숭상하던 放達不羈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으며, 특히 老莊은 입에조차 담지 않았으나 배척하지는 않았다.⁵⁰⁾ 일평생 한 번도 관아에 들어간 적이 없으며 청렴결백한 품행으로 고결한 명성을 얻었다.⁵¹⁾ 《晉書》에 의하면 범선은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사학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며 시서를 송독했는데, 譙國의 戴逵 등이 풍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와 존경을 표시했으며, 경을 낭송하는 소리가 마치 유학의 본고장에 온 것 같았다고 한다. 太元 중에는 豫長 太守로 부임한 유학자 范甯(339-401)이 郡에 향교를 세워 항상 수백 명을 가르쳤으므로, 江州 인사들은 이 二范의 영향으로 경학을 많이 연구하게 되었다고 한

49) 《世說新語》 1-38, 2-5, 6-5, 8-11.

50) 《晉書·儒林傳》卷91: 「정시 이후로 세상에서 老莊을 숭상하였으며, 진초에 이르러서는 다투어 나체로 지내는 것으로 고결하다 여기게 되었다. ...범선은 言談 시에 노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손님이 인생은 우환과 함께 한다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자 범선이 《莊子·至樂篇》이라고 대답했다. 손님이, 『그대는 노장을 읽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찌 이것을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범선이 웃으며, 『어려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라고 말했다. (正始以來, 世尚老莊. 逮晉之初, 競以裸裎爲高. ...宜言談未嘗及老莊... 客有問人生與憂俱生, 不知此語何出. 宣云: 『出莊子至樂篇.』 客曰: 『君言不讀老莊, 何有識此?』 宣笑曰: 『小時嘗一覽.』)」

51) 《世說新語·棲逸》 14.

다.52) 범녕은 浮虛한 것을 심히 싫어하여 王弼과 何晏의 죄가 桀紂보다 깊다고 비난하던 유학자로 《春秋穀梁傳集解》을 저술했다.53)

《世說新語》에는 시대풍조를 거슬러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견지하는 일관된 태도로 은일의 삶을 살았던 유학자 범선의 고사가 3조 수록되어 있다. 이는 위진남북조 시대 私學과 家學의 주요 내용이 유학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후학을 양육하는 덕망 있고 학문이 깊은 유학자의 절조 있는 삶을 존중하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남다른 조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위진 정신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泰山 平陽 羊長和(羊忱, ?-311)는 대대로 고관을 지낸 가문출신으로, 부친 羊繇는 車騎掾을 지냈다. 양침은 성품이 매우 강직했으며, 太保長史·楊州刺史·侍中을 지냈다.54) 문상을 하러 왔다가 양요의 다섯 아들 중 가장 어린 양침이 애통하는 모습과 태도가 완전히 어른과 같은 것을 본 양호가 종형은 돌아가시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감탄한 것은 양침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위진의 喪禮는 대체로 유가의 孝道를 중심으로 한 漢禮를 답습하고 있었지만, 진술함과 탈속을 숭상하던 위진에 와서 前世代와 다른 측면에서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55) 곡읍의 예를 갖추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통함의 진정성 유무에 대한 것이었다. 그 좋은 예로 王戎과 和嶠를 生孝와 死孝로 구분하여, 예를 갖추었으나 정신과 기력이 손상되지 않은 화교보다 예를 지키지

52) 《晉書·儒林傳》卷91: 「범선은 비록 늘 한가하게 지냈으나 항상 강송을 업으로 삼았는데, 초국 대규등이 풍문을 듣고 존경하여 멀리서 찾아왔으므로 풍송하는 소리가 마치 유학의 발상지인 제노지역에서 나는 것 같았다. 태원 중에는 순양 범녕이 예장태수가 되었는데, 범녕 역시 유학에 통달한 학자로 군에 향교를 세웠는데 항상 수백 명이 가르침을 받았다. 이처럼 강주인사들이 경학을 좋아하게 된 것은 二范의 교화 때문이다.(宣雖閑居屢空, 常以講誦爲業, 譙國戴逵等皆聞風宗仰, 自遠而至, 諷誦之聲, 有若齊魯. 太元中, 順陽范甯爲豫長太守, 甯亦儒博通綜, 在郡立鄉校, 教授恒數百人. 由是江州人士並好經學, 化二范之風也.)」

53) 《晉書》卷75: 「당시 부화한 풍조가 날로 심해지고 유가의 고아함은 날로 사라져가니, 범녕은 그 원인이 왕필과 하안에게 있으며, 두 사람의 죄가 걸주보다 깊다고 여겼다.(時以浮虛相扇, 儒雅日替, 甯以爲其源始於王弼, 何晏, 二人之罪深於桀紂.)」

54) 《世說新語·方正》劉注에서 인용한 《文字志》曰: 「世爲冠族. 父繇, 車騎掾. 忱歷太保長史, 楊州刺史, 遷侍中. 永嘉5年, 遭亂被害, 年五十餘.」

55) 《晉書·禮志》: 「古者天子諸侯葬禮祖備, 漢世又多變革. 魏晉以下世有改變, 大體司漢之制.」

않았으나 애통함으로 빼만 남은 채 침상에 의지했던 왕융을 높이 샀던 것을 들 수 있다.⁵⁶⁾

2.2. 독특한 모습과 자질을 지녔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행동을 통해 한 사람의 내재적 품격과 자질을 유추해내거나, 혹은 운명을 예측해내는 고사로 6조의 고사가 수록되어 있다.⁵⁷⁾

平北將軍인 부친이 면직될 상황에 처하자 京城에 있던 王夷甫(王衍, 236-311)는 친히 尙書僕射 羊祜와 尙書 山濤를 만나 해명했다. 당시 14세였던 왕연은 풍채가 수려하고 재능이 남달랐으며, 논변은 조리 있고 명쾌했으며 내용도 훌륭했다.⁵⁸⁾ 그러나 양호가 받아들이지 않자 옷을 털면서 일어나 가버렸다. 이런 왕연을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여긴 山濤와 달리 양호는 장차 훌륭한 명성을 얻어 고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미풍양속을 무너뜨리고 교화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⁵⁹⁾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당치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억지를 쓰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통해 장래 청담에 심취하여 經國에 전념하지 않을 것을 예측한 것이라고 하겠다. 王衍의 失政으로 石勒과 劉曜의 공격을 받고 결국 西晉은 망하고 말았다.⁶⁰⁾

王處仲(王敦, 266-324)은 琅邪 臨沂 王氏 출신이며 晉武帝의 사위이다. 팔왕의 난에 공을 세워 散騎常侍·侍中·青州刺史를 역임하였으며 서진이 망하자 종형 王

56) 《世說新語·德行》 17.

57) 《世說新語》 7-5, 7-6, 7-25, 7-27, 8-6, 31-8.

58) 《世說新語》 본문에는 17세로 되어있으나, 《世說新語箋疏》에서 余嘉錫은 14세라고 봄. 390쪽

59) 《世說新語·識鑑》 5 劉註에서 인용한 《晉陽秋》: 「夷甫父父, 有簡書, 將免官, 夷甫年十七, 見所繼從舅羊祜, 申陳事狀, 辭甚俊偉. 祜不然之: 夷甫拂衣而起. 祜顧謂賓客曰: 『此人必將以盛名處當世大位, 然敗俗傷化者, 必此人也!』」

60) 《晉書》 卷43: 「왕연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정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며 홀로 살길을 모색하고자, 석류에게 청제할 것을 권하였다. ...왕연은 죽음을 앞두고 주위사람들에게 『오호라! 우리들이 비록 옛사람들처럼 하지 못했어도, 浮華한 것을 숭상하지 않고 힘을 모아 천하를 바로 잡기만 했어도 오늘날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테인데..』 라고 했다.(衍自說少不豫事, 欲求自免, 因藺勸稱尊號...衍將死, 顧而言曰: 『嗚呼! 吾曹雖不如古人, 向若不祖尚浮虛, 勳力以匡天下, 猶可不至今日.』」

導와 더불어 司馬睿를 황제로 옹립한 동진 개국공신으로 侍中·大將軍·丞相·江州牧을 역임했다.⁶¹⁾ 후에 元帝가 劉隗·刁協·戴淵등을 중용하여 왕돈을 견제하려 하자 군사를 일으켜 石頭를 함락시키고 周顛·刁協·戴淵등을 살해했다. 스스로 승상이 되어 군권을 장악하고 武昌에 주둔하며 정권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명제 등극 후에 姑孰에서 스스로 楊州牧이 되었으며 다시 거병하여 모반을 기도하였으나 병사하였다.⁶²⁾ 벌 눈의 모습은 이미 드러났으나, 승냥이 목소리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는(蜂目豕喙) 평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벌과 승냥이에 비유하여 왕돈이 무력으로 남을 제압하는 사람임을 예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반에 성공하지 못할 것도 추리해낸 것이라고 하겠다.

螢雪之功으로 유명한 車胤은 南平人으로, 10여 살쯤 되었을 때 차운의 남다른 을 간과한 王胡之의 눈에 띠었는데, 당대의 청담명사이던 왕호지는 그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차운을 참석시켰다. 차운은 장성하여 桓溫의 인정을 받았으며, 처음에는 환온의 從事였으나 후에 護軍將軍과 吏部尙書를 지냈다. 풍모가 훌륭하고 재기가 넘치는데다가 박학다식하며 남에 대해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謝安 같은 유명인사가 항상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곤 했다.⁶³⁾

차운은 유학에 정통했으므로, 寧康 3년(375) 9월 9일에 孝武帝 司馬曜가 《孝經》을 강론할 때 謝安·陸納·卞耽·謝石·袁宏 등과 참석하여, 丹陽尹 王混과 더불어 의문점을 질문하였으며, 후에 國子博士를 이끌었다.⁶⁴⁾

傅亮(374-426)은 字가 季友로 經史를 두루 섭렵하였고 문장에 능하였다. 尙書令

61) 《世說新語·文學》 20의 劉注에서 인용한 《王敦別傳》: 「敦字處仲, 琅邪臨沂人. 少有名理, 累遷青州刺史. 避地江左, 歷侍中·丞相·大將軍·揚州牧. 以罪伏誅。」

62) 《晉書》 卷 98.

63) 《世說新語·識鑑》 27 劉注에서 인용한 《續晉陽秋》: 「及長, 風姿美劭, 機悟敏率. 桓溫在荊州取爲從事, 一勢至台中. 胤既博學多聞, 又善於激賞. 當時每有盛坐, 胤必同之, 皆云: “無車公不樂.” 太傅謝公遊集之日, 開筵以待之。」

64) 《晉書》 卷83: 「효무제가 일찍이 효경을 강론할 때, 복사 사안은 효무제를 侍坐하고, 상서 육납은 侍講을 하며, 시중 변담은 경문을 해석하고, 황문시랑 사석과 이부랑 원평은 질문에 답하고, 차운과 단양윤 왕혼은 의문점을 질문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를 영광스럽게 여겼다. 시중으로 승진하였다. 태원 중에는 태학생을 100명을 더 뽑아서 차운으로 국자박사들을 이끌게 했다. (孝武帝嘗講孝經, 僕射謝安侍坐, 尙書陸納侍講, 侍中卞耽執讀, 黃門侍郎謝石, 吏部郎袁宏執經, 胤與丹陽尹王混擯句, 時論榮之. 累遷侍中. 太元中, 增置太學生百人, 以胤領國子博士.)」

을 역임하고, 光祿大夫를 지냈다. 부량이 네다섯 살 때 郗超가 부량의 옷을 벗겨 주변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부량은 조금도 아까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러한 태도를 보고 치초는 부량이 타고난 훌륭한 재능으로 명성을 누릴 수 있으나 끝까지 가문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평했다.⁶⁵⁾ 치초의 예언대로 부량은 元嘉 3년 (426) 營陽王 少帝 劉義符와 廬陵王 劉義眞 두 왕을 살해한 일로 문책당해 주살되었다.

鍾會는 王戎과 裴楷(237-291)에 대해, “배해는 淸通하고 왕용은 簡要하니, 이 두 사람이 吏部尙書가 될 이십 년 후에는 천하에 묻혀있는 인재가 없을 것이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왕용은 능력이 없어도 문벌만 좋으면 관리로 선발했으며, 능력 있는 寒品의 인재를 등용하지 않았다.⁶⁶⁾

배해는 老子와 周易에 정통하며 뛰어난 식감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고매한 성품에 빼어난 용모와 자태를 지니고 있어서 ‘玉人’이라 불렸다.⁶⁷⁾ 성품이 관대하여 사람들의 원한을 사지 않았다. 후에 中書丞으로 張華, 王戎과 더불어 요직을 맡았다. 공정하여 직위에 합당한 인재를 선발하기로 이름난 山濤(205-283)가 吏部尙書로 있을 때, 中書丞 和嶠 · 侍中 배해와 王濟가 산도를 중심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명망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관리를 선발할 때 산도는 명망이 없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尙書郎이던 潘岳은 “관청의 동쪽에 큰 소가 있는데, 왕제가 굴레를 엮고 배해가 고삐를 쥐고 화교가 바삐 몰아 쉴 수가 없네.”라는 노래를 지어 비난했다.⁶⁸⁾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귀족 자제들 틈에서 뜻을 이룰 기회를 얻지 못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⁹⁾

65) 《宋書·傅亮傳》卷43: 「치초가 부원을 방문했는데, 그 두 아들 부적과 부량을 보았다. 그 때 부량은 네댓 살이었는데, 郗超가 부량의 옷을 벗겨 주변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부량은 조금도 아까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치초가 “당신의 작은 아들은 명성과 관직이 형을 능가할 것이나 끝까지 가문을 보호하는 것은 큰 아들일 것이요.”라고 말했다.(超嘗造瑗, 瑗見其二子迪及亮, 亮年四五歲, 超令人解亮衣使左右持去, 初無吝嗇, 超謂瑗曰: 『卿小兒才名位官當遠踰於兄, 然保家傳祚, 終在大者。』)」

66) 《晉書·王戎傳》卷43.

67) 《世說新語·容止》12.

68) 《世說新語·政事》5 및 劉注.

69) 《晉書·潘岳傳》卷55: 「반약이 才學으로 명성을 날리자 세상의 질투를 받게 되어 은거하다가 10년 만에 출사하여 丹陽令에 부임하였다. 재능이 있었으나 명성만큼 뜻을 얻지 못하였다. 당시 상서복사 산도와 이부를 이끄는 왕제와 배해가 모두 황제의 신임을 얻었으므로 반약은 그

王戎과 裴楷는 나라에 적체된 인재가 없도록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리라는 중회의 기대를 이루지 못했으니, 이는 두 사람 모두 위진 문벌정치의 정치적 한계를 뛰어 넘을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3. 뛰어난 지혜와 재능이 있다.(8조)

3.1. 분별력이 뛰어나다

총명하고 지혜로워 어른 못지않게 사리분별을 잘 하는 어린이들의 고사 6조가 수록되어 있다.⁷⁰⁾

何平叔(何晏, 190-249)은 漢의 大將軍 何進의 손자로 일찍 부친을 여의고司空이던 曹操의 첩이된 모친 윤씨를 따라 궁에서 지냈는데, 당시 조조는 秦宜錄의 아들 秦朗과 함께 하안을 친자식처럼 사랑했다. 조조가 양자로 삼으려하자, 하안은 땅에 사각형을 그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기가 하씨의 거처입니다.”라고 말했다. 궁중에서의 생활이 임시방편일 뿐 조조의 아들이 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으로, 조조도 그 사실을 알고는 즉시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안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이 있었으며 周易과 老子에 관한 담론에 뛰어나다. 신중한 秦朗과 달리 자존감이 강하고 거리낌이 없는 성격의 하안은 태자처럼 차리고 다녔으며, 또 자신의 용모를 좋아하여 걸어 다닐 때도 늘 그림자를 돌아볼 정도로 신경을 썼다.⁷¹⁾ 이런 하안을 싫어하던 조비는 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양자”라고 불렀다.⁷²⁾ 金鄉公主와 결혼했으나, 여색을 좋아하여 黃初시기에는 관

것을 비난하여 관청에 노래를 지어 붙였다. 『관청의 동쪽에 큰 소가 있는데 왕제는 굴레를 엮고, 배해가 고삐를 쥐고, 화교는 바삐 몰아 쉬지 못하네.』(岳才名冠世, 爲衆所疾, 遂枉遲十年. 出爲河陽令, 負其才而鬱鬱不得志, 時尚書僕事山濤, 領吏部王濟裴楷等並爲帝所親遇, 岳內非之, 乃題閣道爲謠曰: 『關道東, 有大牛. 王濟鞅, 裴楷韉, 和嶠刺促不得休.』)

70) 《世說新語》 3-19, 12-2, 12-5, 12-7, 25-40, 27-7.

71) 《世說新語·容止》 2의 劉注에서 인용한 《魏略》: 「晏性自喜, 動靜粉帛不去手, 行步顧影。」

직을 맡지 못했으며, 明帝 때에는 한직에 임명되었다. 正始年間(240-248)에 曹爽이 尙書로 기용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일을 맡겼는데 주로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을 발탁하였으며, 세력을 믿고 멋대로 굴다 후에 司馬懿에게 피살되었다.⁷³⁾

하안은 夏侯玄, 王弼등과 老莊을 숭상하며 친지만물이 모두 無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는 관점에서 「以無爲本, 以有爲末」의 「貴無賤有」론을 주장했다. 또한 「自然」이 「名教」의 근본이라고 여겨 「자연」을 중시하고 「명교」를 경시했으며, 魏晉의 한 시대를 풍미한 玄學과 清談의 서막을 열었다. 저서로는 《道德論》·《無名論》·《無爲論》 등이 있으며, 지금은 《論語集解》만 전한다.

韓伯은 겁바지를 지어주려는 모친 殷婦人에게 불이 다리미 속에 있으면 자루까지 뜨거워지는 것처럼, 저고리를 입고 있으니 곧 아랫도리도 따뜻해질 것이라며 고사했다. 어린 나이에 어려운 집안 형편을 이해하고 다리미를 예로 들어 모친을 안심시키려 한 것이다.

한백은 자가 康伯으로 청담가로서 玄言에 능하던 殷浩의 조카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으며 논리에 밝았다.⁷⁴⁾ 특히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담론에 뛰어났다.⁷⁵⁾ 검박한 생활을 했으며, 명교를 중시했다.⁷⁶⁾ 주역에 관한 연구로 《繫辭》·《說卦》·《序卦》·《雜卦》 등에 관한 注가 있는데, 현재 《十三經注疏》에 수록되었다.

72) 《三國志》卷9 裴注: 「蘇性謹慎, 而晏無所顧憚, 服飾擬於太子, 故文帝特憎之, 每不呼其姓字, 嘗謂之爲『假子』。」

73) 《世說新語·言語》14의 劉注에서 인용한 《魏略》: 「何晏字平叔, 南陽宛人, 漢大將軍何進孫也. 或云何苗孫也. 尚主, 又好色, 故黃初時無所事任. 正始中, 曹爽用爲中書, 主選舉, 宿舊者多得提拔. 爲司馬宣王所誅。」

74) 《世說新語·德行》38 劉注에서 인용한 《續晉陽秋》: 「韓伯字康伯, 潁川人. 好學, 善言理。」

75) 《世說新語·言語》79.

76) 《晉書·本傳》卷75: 「진군 주협은 사안의 주부였는데, 상을 치르는데 예를 폐하고 노장을 숭상하여 명교를 저버렸다. 강백이 중정을 이끌고 있었는데 주협을 통과시키지 않고, 『하급의 예를 숭배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에 어긋나게 행한다. 정리의 지극함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고 해서 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하여,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한백이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며, 제재할 수 없는 세상을 제재한다고 일컬었다.(陳郡周繼爲謝安主簿, 居喪廢禮, 崇尚莊老, 脫落名教. 伯鎮中正, 不通繩, 議曰: 『拜下之敬, 猶違衆從禮. 情理之極, 不宜以多比爲通.』時人憚焉. 識者謂伯可謂澄世所不能澄, 而裁世所不能裁者矣.)」

王敦의 군막에서 잠을 자던 왕희지가 모반계획을 듣고 곧바로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 토해서 이부자리를 더럽힌 뒤 깊이 잠든 척하여 목숨을 건진 고사는, 劉孝標의 注와 余嘉錫의 箋疏를 통해 王允之의 고사라고 증명되었다.⁷⁷⁾ 후에 왕윤지는 부친 王舒가 廷尉에 임명되자 왕돈의 허락을 받아 문안하러 낙양으로 돌아가 부친에게 모반계획을 알렸고, 부친 王舒는 王導와 함께 明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후에 왕윤지는 蘇峻을 토벌한 공을 인정받아 식읍 1600호의 番禺縣侯에 봉해졌다. 후에 宣城內史, 江州刺史를 지냈다.⁷⁸⁾

3.2. 재능과 창작능력이 뛰어나다.

재능과 창작능력이 뛰어난 어린이에 관한 고사로 2조가 있다.⁷⁹⁾

戴安道(戴逵, 326-396)는 晉 譙郡 銓縣人이다. 젊어서부터 박학하고 담론을 좋아했으며 문장에 뛰어났고, 북과 琴에 능했다. 서화에 재능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교예에도 능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⁸⁰⁾ 젊어서부터 고결한 지조를 지녔으며, 담백하고 활달하여 청담명사 劉惔의 인정을 받았고, 특히 遊覽과 연회를 통해 명문가의 풍류재자들과 교유했다.⁸¹⁾ 당시의 세상 풍조를 마땅치 않게 여겨, 홀로 琴과 서책을 즐기면서 會稽의 剡山에 은거했다. 國子博士로 부름 받았으나

77) 王羲之(303-361, 혹은 309-365, 321-379)는 元帝 太興 4년 출생으로 명제 太寧 원년 왕돈 사망 시 4세이고, 允之는 惠帝 太安 2년 생으로 왕돈 모반 시 10여세였다. 《新譯世說新語》, 786쪽, 三民書局, 臺北.

78) 《晉書·本傳》卷76: 「時父舒始拜廷尉, 允之求還定省, 敦許之. 至都, 以敦、鳳謀議事白舒, 舒即與導俱啓明帝... 及蘇峻反, 允之討賊有功, 封番禺縣侯, 邑千六百戶, 除建武將軍、錢塘令, 領司鹽都尉. 咸和末, 除宣城內史、監揚州江西四郡事、建武將軍, 鎮于湖. 咸康中, 進號西中郎將、假節. 尋遷南中郎將、江州刺史。」

79) 《世說新語》7-8, 7-17.

80) 《晉書·隱逸傳》卷94: 「어려서부터 박학했고 담론을 좋아했으며, 문장을 잘 지었고 북과 금에 능했으며, 글씨와 그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기예에 능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少博學, 好談論, 善屬文, 能鼓琴, 工書畫, 其餘巧藝靡不畢綜.)」

81) 《世說新語》6-34 劉注에서 인용한 《晉安帝紀》: 「戴逵字安道, 譙國人. 少有清操, 恬和通任, 爲劉眞長所知. 性甚快暢, 泰於娛生. 好鼓琴, 善屬文, 尤樂遊燕, 多與高門風流者遊, 談者許其通隱. 屢辭徵名, 遂著高尚之稱.」

《世說新語》를 통해 본 魏晉의 아동형상 127

나가지 않았다.82) 항상 예로서 처신했으며, 방달한 행위를 도에 어긋난다고 여겼다. 元康 시기의 방달한 자들을 '죽림칠현의 방달함은 병이 있어 얼굴을 찡그린 西施와 같은 것이었다면, 元康의 방달함은 자질도 없이 명사의 흉내나 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83)

《戴逵集》 9권이 있으나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4. 學問적 소양이 있다.

4.1. 家學을 통해 학문을 연마한다.

家學을 통해 학문을 연마하는 어린이들의 고사로 3조가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陳國 陽夏 謝氏 가문이다.84)

위진남북조는 명교를 부정하고 자연을 추구하며 放達함을 숭상하던 풍조가 만연했지만, 안으로는 가문의 미래를 위해 유학을 기초로 자녀들을 교육하던 시대였다. 위진남북조의 교육은 官學·私學·家學의 3종류가 있었으나, 관학에 비해 사학이 더 번창했다. 그 이유는 전란의 동요가 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관학이 유지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가족과 가정교육을 중요시하던 문벌세족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교육을 통해 가풍을 세우며 가문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85)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한 가문의 흥망성쇠는 가학을 통해 배출해낸 정치권

82) 《世說新語》 18-12 劉注에서 인용한 《續晉陽秋》: 「逵不樂當世, 以琴自娛, 隱會稽剡山, 國子博士徵, 不就。」

83) 《晉書·隱逸傳》 卷94: 「성품이 고결하여 항상 예로서 처신했으며, 방달한 행동을 도에 어긋난다고 여겨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죽림시기의 명사들은 병이 있어 눈을 찡푸리던 西施와 같은 자들이었고, 원강시기의 방달함은 자질도 없으면서 명사의 흉내를 내어 각건을 접어서 쓰던 자들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性高潔, 常以禮度自處, 深以放達爲非道, 乃著論曰: 『...然竹林之爲放, 有疾而爲癡者也, 元康之爲放, 無德而折巾者也, 可無察乎!』)」

84) 《世說新語》 2-71, 2-92, 4-52.

85) 許輝, 邱敏, 胡阿樣 主編, 《六朝文化》, p.93, 中國: 江蘇古籍出版社, 2001.

력을 지닌 인물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문벌세족들은 특별히 가문 안에서의 교육을 중시했다. 가학의 내용은 주로 유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밖에도 玄學·佛學·道學·문학·사학·음악·천문·수학·의학·書藝·棋藝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⁸⁶⁾

謝安이 문장을 강론하다가 흘날리는 흰 눈을 보고 무엇에 비유할 것인가를 묻고는, ‘공중에 소금을 뿌린다.’는 비유보다, ‘머들 숨이 바람에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더 높이 산 것은 일종의 문학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조카 謝玄이 《小雅·采薇》를 《毛詩》 중 佳句로 선택하자, 《大雅·抑》이 더 훌륭하다고 지적한 것은 조카에게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포부를 키워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또한 아들과 조카들에게 “너희들은 남의 일에 참여하여 어떻게 그들을 훌륭하게 만들고자 하는가?”라고 물은 것 또한 자녀들을 經國의 리더로 키우기 위한 일종의 멘토 수업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후에 사현은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자신의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 리더로 인정을 받아 북벌의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符堅의 침략을 막아 내는데 성공했다.⁸⁷⁾

이처럼 문벌 안에서 행해지고 있던 가학은 학문적인 것 외에도 특별한 지식이거나 서예, 琴術, 棋藝 등의 기능을 전수함으로써 가문의 고상함과 멋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가학 안에서 행해지던 교육의 장에는 여성도 참여할 수 있었으니, 같은 서열의 남자형제들보다 월등한 자질과 포부를 지녔던 謝道韞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안의 형 謝據의 아들로 일찍이 숙부 사안의 인정을 받았던 謝朗은 아명이 胡兒로, 현학적 담론에 뛰어났고 문장이 훌륭하였으며, 벼슬은 東陽太守에 이르렀다. 형 謝奕의 딸인 謝道韞은 재능이 출중하고 언변이 뛰어났으며, 논리적인 玄談에도 능했던 여성으로, 王羲之의 아들 王凝之와 결혼했다. 《隋書·經籍志》에는 《謝道韞集》 二卷이 저록되어있으나 현재 일실되고 없으며, 현존하는 작품으로는 《藝文類聚》에 실린 〈論語贊〉, 〈擬嵇中散詩〉와 《秦漢魏晉南北朝詩》에 실린

86) 朱大渭, 劉馳, 梁滿倉, 陳勇 著, 《魏晉南北朝社會生活史》, p.469,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998.
許輝, 邱敏, 胡阿樣 主編, 《六朝文化》, p.94, 중국 : 江蘇古籍出版社, 2001.

87) 《世說新語·識鑒》 22.

〈登山詩〉만 남아있다.⁸⁸⁾

謝玄(343-388)은 사도온의 동생으로 '經國之才略'을 지닌 인물로 숙부 사안과 더불어 淝水之戰에서 승리하여 符堅을 제압하고 동진을 구하는 공을 세웠으며, 兗州刺史와 江北諸軍事를 역임했다. 후에 散騎常待·左將軍·會稽內史를 지냈으며, 車騎將軍에 추서되었다.

4.2. 典故 인용 능력이 있다.

어른들과 대화할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고를 인용하는 어린이들의 고사로 3조가 수록되어 있다.⁸⁹⁾ 孫放이 인용한 전고는 《詩經·魯頌·泮宮》에 나오는 말이고, 張玄之의 말은 《晏子春秋·雜下》에 전고를 두고 있다. 王獻之가 저포놀이 하는 문생들에게 남쪽 편에 앉은 편이 졌다고 한 '南風不競'은 《左傳·襄王18年》에서 나온 말이다. 이처럼 육 칠 팔세 정도의 어린이들이 유가경전을 근거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가학을 통한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張玄之는 字가 祖希로 吳郡太守 張澄의 손자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으로 이름이 났으며 吏部尙書를 역임한 뒤 조정을 나와서 冠軍將軍·吳興太守를 지냈다. 謝玄과 더불어 남북의 二玄이라고 불렸다.⁹⁰⁾

王子敬(王獻之, ?-388)은 왕희지의 일곱째 아들로 어려서부터 명성을 날렸는데 풍채가 고상했으며, 예의 규범을 숭상하지 않았으나 행동거지는 경망스럽지 않았다. 초서와 예서에 능했으며, 그림을 잘 그렸다. 7, 8세 때 글씨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벽에다 사망 한丈이나 되는 글씨를 써서 수 백 명이 모여 구경하곤 했다.⁹¹⁾

88) 참고 〈謝道韞을 통해본 청담시대의 여성〉, 중어중문학 제 31집, 2002년, 한국중어중문학회

89) 《世說新語》 2-49, 25-30, 5-59.

90) 《世說新語·言語》 51의 유주에서 인용한 《續晉陽秋》曰:「張玄之字祖希, 吳郡太守澄之孫也. 少以學顯, 歷吏部尙書, 出爲冠軍將軍, 吳興太守. 會稽內史謝玄同時之郡, 論者以爲南北之望. 玄之名亞謝玄, 時亦稱南北二玄, 卒於郡。」

91) 《晉書》 卷80: 「초서와 예서에 능했으며, 그림을 잘 그렸다. 7,8세 때 글씨를 배우기 시작했는

서체가 수려하며 탁월하게 뛰어나 부친과 함께 명성을 얻었는데, 부친의 서체를 변형시켜 今體를 만들었다.⁹²⁾ 그러나 성격이 너무 단정하고 준엄하여 문벌의 지위가 비슷한 사람이 아니면 교제하지 않았다.⁹³⁾ 문장과 담론에 뛰어나지는 않았으나 그 훌륭한 경지를 체득하고 있었으므로 풍류의 으뜸이라는 명성을 얻었다.⁹⁴⁾

郗曇의 딸과 결혼했다 이혼하고 新安公主와 재혼했다. 建威將軍, 吳興太守를 역임했으며, 尙書丞에 등용되었다.

5.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다.

아랫사람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만류하는 고사로 2조가 있다.⁹⁵⁾

劾의 현령으로 있던 謝奕이 법을 어긴 노인을 끊임없이 독주로 벌주자, 형의 무릎가에 앉아 있던 사안은 형에게 불쌍한 노인을 그만 용서해 주자고 간언했는데 그 때 나이 7·8살 쯤 이었다.

謝安은 성품이 온아하고 부드러운데, 풍모가 수려하고 현답에 뛰어났고, 철리에 통달하지는 못했지만 논리가 면밀하고 조리 있는 담론을 펼쳤다.⁹⁶⁾ 문학적 자질이 뛰어났으며,⁹⁷⁾ 행서에 조예가 깊었고,⁹⁸⁾ 음악을 좋아했는데,⁹⁹⁾ 특히 '洛下書

데 부친이 몰래 뒤 따라가며 붓을 빼내려다 빼내지 못하고는, '이 아이는 후에 크게 이름을 날릴 것이다.'라고 감탄했다. 벽에다 사방 한 치이나 되는 글씨를 쓰곤 했는데, 부친은 매우 재능이 있다고 여겼으며, 수 백 명이 모여 구경하곤 했다.(工草隸, 善丹青, 七八歲時學書, 羲之密從後掣其筆不得, 歎曰:『此我後當復有大名.』嘗書壁爲方丈大字, 羲之甚以爲能, 觀者數百人.)

92) 《世說新語·品藻》 75의 유주에서 인용한 宋明帝《文章志》曰:「獻之善隸書, 變右軍法爲今體, 字畫秀媚, 妙絕時倫, 與父俱得名。」

93) 《世說新語·忿狷》 6의 유주에서 인용한 劉謙之의 《晉紀》:「王獻之性甚整峻, 不交非類。」

94) 《世說新語·品藻》 6의 유주에서 인용한 《續晉陽秋》:「獻之文義, 並非所長, 而能職其勝會, 故擅名一時, 爲風流之冠也。」

95) 《世說新語》 1-33, 10-10.

96) 《世說新語·品藻》 62.

97) 《世說新語·文學》 87.

98) 《世說新語·德行》 34.

99) 《世說新語·賞譽》 128.

生詠'을 잘 불렀다.¹⁰⁰⁾

사안은 후에 20년 동안 평민으로 은거하다 354~360년 사이에 尙書郎·琅邪王友·吏部郎 등에 초빙되었으나 거절하다가 금고형을 받기도 했다.¹⁰¹⁾ 그러나 동생 謝萬이 北征에 실패하고 폐서인이 된 후 뜻을 바꾸어 桓溫의 司馬로 정치생활을 시작했다.¹⁰²⁾

사안은 늘 후덕한 정치로 백성들을 감화시켰는데,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들은 덮어두었으며, 강성한 외적이 침입해 와도 민심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등 확고부동한 정치적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¹⁰³⁾ 또한 하급관리들을 예우하며 겸손하게 처신했으며,¹⁰⁴⁾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 정치가였다. 부견의 태자 符宏이 後秦에 반기를 들고 동진에 귀순하자 사안은 그를 우대하고 이끌어 주었을 뿐 아니라,¹⁰⁵⁾ 寒族 출신이나 풍류를 지니고 있는 齷齪齒와 서슴없이 교류하는 아량을 지니고 있었다.

가문을 위해 후세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특별히 습착치와 한 좌석에 앉지 않으려는 왕헌지를 통해 자긍심에 구애받다 자연스런 성품을 해치지 않도록 하라고 조카에게 훈계를 한다던가,¹⁰⁶⁾ 謝朗이 사실을 모르고 부친의 잘못을 오해하여 비난할 때, 자신이 지은 잘못이라고 가탁하여 조카를 깨우쳐 주기도 했다.¹⁰⁷⁾ 또한 여성처럼 즐겨 자줏빛 비단 香囊을 차던 謝玄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기를 하자고 속여서 그것을 따낸 뒤 즉시 태워버린 것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¹⁰⁸⁾ 뿐만 아니라 조카들과 함께 담론을 하며, 조언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통해 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하곤 했다.¹⁰⁹⁾

100) 《世說新語·容止》36.

101) 《世說新語·賞譽》77 劉注에서 인용한 《續晉陽秋》, 《世說新語》김장환역주, 268쪽, 살림중국문화총서 7.

102) 《世說新語箋疏》, 余嘉錫, 774-5쪽, 仁愛書局, 臺北

103) 《世說新語·政事》23 劉注에서 인용한 《續晉陽秋》, 《世說新語·雅量》29, 《世說新語·品藻》45.

104) 《世說新語·方正》62와 劉注에서 인용한 宋 明帝의 《文章志》

105) 《世說新語·輕詆》29.

106) 《世說新語·忿狷》6.

107) 《世說新語· 비루》5.

108) 《世說新語·假譎》14.

太保와 錄尚書事に 여러 차례 등용되었으며, 太傅에 추증되었다.¹¹⁰⁾

王平子(王澄, 269-312)는 왕용 · 왕연과 중형제로, 태어나면서부터 이해가 빠르고 총명하여 아직 말을 못할 때에도 거동만보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 내곤 했다.¹¹¹⁾ 사리에 밝아 인물품평에 능했으며,¹¹²⁾ 풍격이 고매하고 志氣가 출중하다는 평을 받았으나, 업적이 명성에 미치지 못하여 사람들을 실망시켰다.¹¹³⁾ 경박하여 품행을 닦지 않았으며, 예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방탕하게 굴었다.¹¹⁴⁾ 겉모습은 산뜻하고 말쑥했지만 속마음은 강박하고 호기를 잘 부렸다.¹¹⁵⁾ 형주자사로 부임하는 길에 환송 나온 사람들 앞에서 까치집에 올라가 까치새끼를 잡아가지고 놀던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¹¹⁶⁾ 그러나 부임 후에 밤낮없이 술만 즐기고 업무를 돌보지 않았으며, 豫章을 지나가다 형 왕돈을 방문하였으나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했다.¹¹⁷⁾

사안과 왕정은 어린 시절에 동일하게 아랫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성장 후에 정치적인 태도는 전혀 달랐다. 한 사람은 위진 풍류를 이해하고 즐기는 명사이면서 동시에 경국에도 능한 정치가로 성장했으니, 위진의 시대적 본질인 內聖外王 즉 ‘無爲而無不爲’를 체득한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현학

109) 《世說新語·品藻》 71.

110) 《世說新語·德行》 34의 劉注에서 인용한 宋 明帝 《文字志》

111) 《晉書·王澄傳》 卷43: 「生而警悟, 雖未能言, 見人舉動, 便識其意。」

112) 《世說新語·賞譽》의 劉注에서 인용한 王隱 《晉書》: 「澄通朗好人倫, 情無所繫。」

113) 《世說新語·賞譽》 31의 劉注에서 인용한 《王澄別傳》: 「澄風韻邁達, 志氣不羣. ...澄後事迹不逮, 朝野失望。」

114) 《世說新語·品藻》 11의 劉注에서 인용한 《晉陽秋》: 「初, 王澄有通朗稱, 以輕薄無行。」

115) 《世說新語·讒僞》 1의 劉注에서 인용한 鄧粲 《晉紀》: 「劉琨嘗謂澄曰: 『卿所難散朗, 而內勁狹, 以此處世, 難得其死!』澄默然無以答. 後果爲王敦所害. 劉琨聞之曰: 『自取死耳!』」

116) 《世說新語·簡傲》 6.

117) 《晉書·本傳》 卷43: 「당시 왕돈은 강주자사로 예정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왕정이 그곳을 지나다 왕돈을 방문했다. 왕정은 이전부터 명사로서 왕돈보다 훨씬 더 이름이 나 있었으므로 사대부와 일반백성에 이르기까지 흠모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남보다 뛰어난 용기와 힘을 겸비하고 있어 평소에 왕돈이 꺼려했는데, 예전의 일로 왕돈을 모욕했다. 왕돈이 더욱 분노하여 남몰래 그를 죽이려는 생각으로 왕정에게 자고 가도록 청했다....왕돈은 역사 로움을 시켜 왕정을 목 졸라 죽였는데 당시 나이가 마흔네 살이었다.(時王敦爲江州, 鎮豫章, 澄過詣敦. 澄夙有盛名, 出於敦右, 士庶莫不傾慕之. 兼勇力絶人, 素爲敦所憚, 澄猶以舊意侮敦. 敦益忿怒, 請澄入宿, 陰欲殺之. ...敦令力士路戎搯殺之, 時年四十四.)」

정신의 진정성을 체득하지 못한 채 ‘無爲’의 경계만을 흉내 낸 것이라고 하겠다.

맺는 말

아동중심 고사의 출현 빈도로 볼 때 〈언어〉 편이 27%로 가장 많았으며, 〈속혜〉 14%, 〈식감〉 12%, 〈문학〉 8%, 〈상예〉 8% 순이었다. 아동 중심고사 전체를 통해 볼 때도 역시 언어능력이 뛰어난 아동의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독특한 개성을 지녔거나(20%) 뛰어난 지혜와 재능이 있거나(16%) 학문적 소양이 있는 아동(12%) 순이었으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지닌 아동의 경우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처럼 언어능력이 뛰어나며 독특한 개성을 지닌 아동을 높이 사고 있는 것은 현학사상이 지배했던 위진인 독특한 사유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당시 어른을 폄평하던 가치관과 척도로 동일하게 아동들을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언어능력이 뛰어난 아동이 반이나 되는 것으로 미루어, 아동들도 청담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다. 열 살 미만의 어린이들조차 뜻도 모르면서 청담의 내용을 줄줄 외우거나 청담수준의 고하에 관해 지극한 관심을 표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청담문화권에 진입하게 되면 명사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사회적 명예와 정치적 지위를 얻기 쉬워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등용 방식은 행동력이 결여된 문인형 관리만을 양산하게 되어 국가적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도덕성이 결여되었거나 현실감각이 없는 사람도 청담능력을 통해 명성을 얻으면 고위관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 지위를 얻은 후에는 학문적 성취나 인격의 도야에 힘쓰고 업적을 쌓기 위한 노력보다는 탈속과 방달 행위를 일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진정성이 결여된 탈속과 방달 행위를 풍류라고 여겨 용납하고 귀히 여기므로, ‘無爲’만을 표방할 뿐 현실적인 대응(‘無不爲’)을 하지 못하

고 無爲를 위한 無爲만을 즐기게 되므로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공융, 왕융, 왕징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三君으로 추앙받던 陳紀 부자나, 가학을 통해 후세들을 양육하고 지도 하던 陳國 陽夏 謝氏 가문의 사안, 사현 그리고 한백, 차윤처럼 명교와 자연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국가를 위해 공헌을 한 청담인사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방달한 행위를 마땅치 않게 여겨 시대를 거슬러 은거하며 명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며 명교를 중시여긴 명사들도 있으니 서치, 범선, 대규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근거로 하여 종합하자면, 위진인들이 추구한 이상적인 아동상은 풍류를 즐길 줄 알며, 뛰어난 담론능력에 독특한 풍격,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학문적 소양 위에 백성에 대한 사랑을 지닌 인물로, 명교와 자연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질을 지닌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학을 중심으로 한 덕치주의가 해체되고 노장 중심의 개인주의적 자아각성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던 시대상황 속에서 현학적 가치관과 인생관의 진정성은 그 본질이 흐려지고 희석되어, 국가에 대한 공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문벌세족으로 멧진 외모에 청담에 능하면 국가의 동량으로 인정되는 지경까지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仁愛書局, 臺灣.
 김장환역주, 《世說新語》, 서울:살림중국문화총서 7, 1996.
 劉正浩 等 注譯, 《新譯世說新語》, 臺灣:三民書局.
 宋 范曄撰, 《後漢書》, 臺灣:洪氏出版社.
 晉 陳壽撰, 宋 裴松之注, 《新校三國志注》, 臺灣:世界書局.
 唐 房玄齡撰, 《晉書》, 臺灣:洪氏出版社.
 清 郭慶藩編 王孝魚整理, 《莊子集釋》, 臺灣:木鐸出版社.
 張永言主編, 《世說新語辭典》, 中國:四川人民出版社.
 錢保塘撰, 《歷代名人生卒錄》, 臺灣:廣文書局.

- 王鵬廷, 《建安七子研究》, 中國:北京大學出版社, 2004.
- 張蓓蓓, 《孔融新論·魏晉學術人物新研》, 臺灣:大安出版社, 2001년.
- 周大興, <自然·名教·因果-東晉玄學論集>, 臺灣:中央研究院 中國文史哲研究所, 2004.
- 賀昌羣著, 《魏晉清談思想初論·魏晉思想 甲編五種》, 臺灣:里仁書局, 1984.
- 湯錫予, 《漢魏兩晉南北朝佛教史》, 臺灣:鼎文書局, 1982년.
- 許輝、邱敏、胡阿樣 主編, 《六朝文化》, 中國:江蘇古籍出版社, 2001년.
- 朱大渭、劉馳、梁滿倉、陳勇 著, 《魏晉南北朝社會生活史》, 469쪽,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998년.
- 즐고, <謝道韞을 통해본 청담시대의 여성>, 중어중문학 제 31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2년.

〈中文提要〉

《世說新語》收錄了不少有關兒童或婦女的記錄, 除了〈賢媛〉·〈夙慧〉篇以外還有其他篇裏收錄了很多. 這就跟重視個人自我的魏晉玄學思惟方式密切關聯的, 他們不管男女年齡, 有一個人有了獨特風格, 把他當作一個藝術品而鑑賞鑑賞.

《世說新語》1130條故事當中以兒童為中心的故事有51條. 在此論文通過《世說新語》所收錄的以兒童為中心的故事把魏晉時代兒童形象化, 然後考究如何成長, 由此闡明魏晉時代理想的兒童像, 和它所持有的時代的意味是什麼?

把兒童為中心的51條故事從新分類而歸納出新類型, 如下: 1) **卓越的語言能力(25條)** 2) **與眾不同的獨特風格(10條)** 3) **天資聰明(8條)** 4) **有學問的基礎(6條)** 5) **有親民之心(2條)**

由於以上5種類型分析可以歸納出如下幾個項目. 兒童中心故事出現頻度即〈言語〉篇占27%, 〈夙慧〉占14%, 〈識鑒〉占12%, 〈文學〉占8%, 〈賞譽〉占8%. 《世說新語》所出現的兒童中心故事看來, 也是語言能力卓越的兒童占50%, 其次持有獨特的個性的兒童占20%, 天資聰明的占16%, 有學問的基礎的兒童占12%, 有親民之心的比率最低.

如此, 重視言語能力卓越兒童的理由, 是進入清談文化圈即容易攀上名士之列, 由此取得社會的名譽和政治的地位. 但, 如此官吏登用方式量產缺乏行動的文人型官吏, 招來不能對付國家的危機. 且缺乏道德性或沒有現實感覺的人也有清談能力而取得名聲, 能錄用高位官職. 所以一旦有了政治的地位之後忽視學問的成就或人格陶冶, 而力行脫俗和放達行爲. 因此, 重視'無爲'而

忽視‘無不爲’，只取樂於‘沒有無不爲的無爲’，因而招得鬆懈國家紀綱。

綜觀以上，魏晉人所追求的理想的人童像，即是持有卓越的語言能力，獨特風格，能克服亂世的智慧和學問的基礎，並加上有親民之心的人物，由此名教和自然之間能達到均衡和調和。可是，瓦解以儒學爲中心的德治主義後，以老莊爲中心的個人主義的自我覺醒代替時代方向；以門閥世族、持有獨特風格、能言清談的，不管玄學的價值觀和人生觀的真情性及對國家功績有無，被認定爲棟樑。

關鍵詞 : 아동, 위진아동, 세실신어, 세실신어 아동형상

이 논문은 2008년 11월 20일에 접수되어 2008년 12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8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